

# 초록의 자연 속 배움이 있는 길



만선교

## 대전 뿌리공원

슬쩍 계절이 바뀌고 있다. 화려한 꽃들로 물긋불긋 하던 거리는 푸르름으로 눈부시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애기하듯 짙어져 가는 자연의 신록. 봄의 항구함과 여름의 생동감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자연 속으로 걸어가 보자.

## 대한민국 성씨 이야기

## 전국 유일 효 테마공원

## 천혜 경관 한폭 수채화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냥 보고 걷기만 해도 좋은 계절이다. 유등천이 흐르고 있는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79번지, 대전 뿌리공원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의 놀이터이자 ‘효’를 테마로 하는 체험학습의 공간이기도 하다.

유동천 맑은 물 위로 ‘만성교(萬姓橋)’가 가로질러 나온다.

만성교에는 모든 성씨가 한 곳에 모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리를 건너면 뿌리공원이라는 표석이 눈에 들어온다.

만성교와 뿌리공원이라는 말에서 이 공원의 특징을 염볼 수 있다. 자신의 뿌리, 성씨를 찾아 보고 돌아볼 수 있는 테마공원이다.

구불구불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산책로를 걷다보면 성씨별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136점의 조형물에는 성씨별 씨족의 유래와 작품 설명 등이 담겨져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보물 찾기를 하듯 산책을 하는 재미가 있다.

오르막을 걷다보면 공원정상의 삼남기념탑이 나온다. 삼남기념탑은 영·호남, 충청도의 화합과 상부상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공원을 한 눈에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다.

공원 곳곳에는 벤치와 팔각정자 등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칠칠 틈이 없다. 산림욕장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자연의 기운을 한껏 받을 수도 있다.

공원 중심에 형성된 넓은 광장은 도심을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노

는 아이들로 북적북적하다. 잔디광장에서는 뿌리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잔디광장 주변의 순환도로는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광장을 보고 서있는 족보박물관은 성씨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인기가 높다. 족보의 체계와 족보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전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더위도 식힐 수 있다.

유등천 수변을 끼고 수변 무대와 스탠드가 조성되어 있다. 수변 무대 옆 벚꽃터 주변에는 깔깔 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오리배가 둥둥 유등천을 돋나.

걸으면서 공부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뿌리공원 인근에 보문산 공원도 관광명소다.

중구 대사동 와 11개동 일원에 걸쳐있는 해발 457.6m의 보문산(寶文山)은 보물이 묻혀있다 하여 ‘보물산’으로 부르다가 보문산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보문산·보문사지의 문화 유적과 함께 야외 음악당, 전망대 등 시설과 등산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둔산동 ‘대선 칼국수’

### 진한 국수 매콤 두루치기

### 50년 손 맛에 눈이 번쩍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선 칼국수. 50년 전통의 칼국수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띈다.

물어보나마나 칼국수는 필수 선택, 대전에 가면 두부두루치기를 먹어야 한다는 지인의 말에 풀깃풀깃 오징어가 더해진 오징어 두부두루치기도 선택했다.

‘50년을 이어온 맛은 어쩔까?’라는 기대감으로 음식을 기다렸다. 다진 고기가 얹혀진 칼국수의 뜨끈뜨끈한 국물은 시원하면서도 진한 맛이 있다. 눈을 번쩍 트이게 하는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먹을수록 은근하게 입이 달기는 매력이 있다. 두루치기도 매운 듯 안 매운 듯 달달매콤하게 자꾸 손길이 간다. 밥을 말아먹어도 좋고 사리를 추가해 쑥쑥 비벼먹어도 좋다.

칼국수 5000원, 비빔국수 5000원, 오징어·두부 두루치기 1만5000원



광주CBS  
1961-2012 주년 기념

2012년 6월 2일(토)~3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주최 광주CBS

협찬 전라남도 KJB 광주은행 농협전남 본부 호텔엔데 삼성생명 AMOREPACIFIC CORPORATION 힐리지호텔 Holiday Inn GWANGJU 하나금융그룹

